

KMI 동향분석

VOL.66
2018 JANUARY

발간년월 2018년 1월(통권 제66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 해양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 개선 -

최석우 성장동력실 전문연구원
(schoi@kmi.re.kr/051-797-4777)

박예나 성장동력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이정민 성장동력실 연구원
(jmin@kmi.re.kr/051-797-4769)

박광서 성장동력실 실장
(kspark@kmi.re.kr/051-797-4722)

KMI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양수산 분야의 국민적 관심사와 동향을 파악하고자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셜 미디어 속에 숨겨진 해양수산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목적으로 해양수산 관련 관심도, 호감도, 연관어 분석을 시행했다.

2017년 SNS 상 키워드 언급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산물이 29만 1,843건으로 54.6%를 차지해 2016년과 마찬가지로 24개 키워드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2016년에는 한진해운 사태의 여파로 해운이 2위를 차지했는데, 2017년에는 독도가 6만 6,490건으로 2위, 해운은 4만 5,660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선원 3만 7,034건, 어업 2만 8,476건, 어촌 19만 201건, 어민 1만 2,054건으로 2016년과 순위변동이 없었으며, 해양정책, 해양안보, 해양영토, 해양공간정보 등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간 언급량이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호감도 분석결과는 24개 키워드 중 13개에서 긍정반응이 증가하고 11개 키워드의 부정반응이 감소하는 등 해양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2016년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운은 부정적 반응이 45%에서 30%로, 국제물류는 29%에서 11%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운산업 재건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 분야별 연관어와 호감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해양분야는 키워드별로 특정산업 및 정책, 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관어가 많은 가운데, 정책수행 주체인 해양수산부에 대한 언급도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특히 해양산업은 ‘조선’, ‘지원’, ‘해양수산부’가 대표적으로 언급되어, 수주절벽·일감공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역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해양자원개발에서는 ‘바다’, ‘관광’, ‘문화’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이밖에 해양과학기술에서는 ‘환경’, ‘에너지’, ‘산업혁명’, 해양정책과 해양영토에서는 ‘독도’, 해양관광에서는 ‘지역’, ‘사업’ 등의 언급이 많았다.

수산분야는 ‘양식’, ‘바다’를 중심으로 연관어들이 형성되고, 어촌은 ‘체험’, 어민은 ‘바다’, 수산물에는 ‘시장’, 원양어업은 ‘어선’이 핵심 연관어로 랭크되었다. 수산분야는 타 분야 대비 블로그, 트위터 등 개인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생성·공유가 활발하며, 주로 6~8월 여름에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이나 먹거리와 연관된 분야에서는 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반면, 어민들의 생활환경과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산물은 가장 많은 언급량과 함께 긍정적 반응도 66%에 달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운항만분야는 여전히 ‘한진해운’ 관련어들이 상위에 위치해 있으며, ‘선박’, ‘사업’, ‘물류’ 등 주로 산업과 관련한 연관어의 언급량이 많았다. 주로 사건과 사고,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시기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개인 미디어보다는 객관적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둔 뉴스가 주요 매체로 나타났다. 해운항만분야의 효율성 개선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으나, 여전히 안전에 대한 염려와 인명 피해 등으로 인한 부정적 반응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번 분석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KMI에서 전문분석업체인 다음소프트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 24개 키워드에 대해 2016년(1.1~12.31)과 2017년(1.1.~10.31)을 대상으로 연관어, 관심도, 호감도를 분석하였음

해양수산 SNS 빅데이터 분석 개요

■ 해양수산 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와 이슈, 호감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고 가능

- SNS 빅데이터 분석은 뉴스,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로부터 데이터통계분석, 네트워크분석, 텍스트분석 등의 기법을 통해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분석법임
-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양수산 관련 키워드별로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국민적인 관심사와 동향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다량의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여 정책 수요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즉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해양수산 정책에 반영할 경우 더욱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양수산 분야의 SNS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17년과 동일하게 3개 분야 24개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 해양 분야는 해양수산, 해양정책, 해양산업 등 총 12개의 키워드를, 수산 분야는 어업, 양식업, 수산물 등 6개, 해운항만 분야는 해운, 해사안전, 항만운영 등 6개의 키워드를 선정
- ※ 기후변화, 자원관리, 운송 등 해양수산 이외의 분야와 구분하기 힘들거나 선박, 입출항, 하역, 어린물고기, 자율관리어업, MSC 인증 등 세부적인 키워드는 제외하였음

표 1. SNS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해양수산 관련 키워드

해양(12)		수산(6)	해운항만(6)
해양수산	해양공간정보	어업	해운
해양정책	극지	양식업	해사안전
해양환경	해양산업	원양어업	선원
해양안보	해양자원개발	어촌	항만운영
독도	해양과학기술	어민	항만개발
해양영토	해양관광	수산물(해산물)	국제물류

■ 상기 키워드를 토대로 2016년과 2017년 두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에서 언급된 연관어, 관심도, 호감도를 분석

- 빅데이터 전문분석업체인 다음 소프트웨어에 의뢰하여 2016년과 2017년을 대상으로 뉴스와 트위터, 블로그를 분석하였음
 - * 단 2016년은 1.1.~12.31, 2017년은 1.1.~10.31.을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함
- 해양수산 관련 연관어, 관심도, 호감도를 분석하였으며, 블로그에서 리트윗은 제외하였음
- 분석절차는 ‘수집→저장→처리→분석→시각화’의 5단계를 거침

그림 1. 해양수산 SNS 빅데이터 분석 개요

대상기간	(1기간) 2016.1.1.~12.31. (2기간) 2017.1.1.~10.31.
분석기간	2017.12.1.~12.15.
대상매체	뉴스, 트위터, 블로그
분석내용	연관어(이슈어), 관심도, 호감도
분석기관	다음소프트
분석절차 및 방법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쿼리 구축(키워드 구축 및 동의어, 유의어, 제외어 작업) ▪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일별, 주별, 월별 버즈 추출, 이슈 점유율 추이 추출, 기간별 핫 키워드 추출, 감성 연관어 추출, 데일리 모니터링 및 사전 튜닝 작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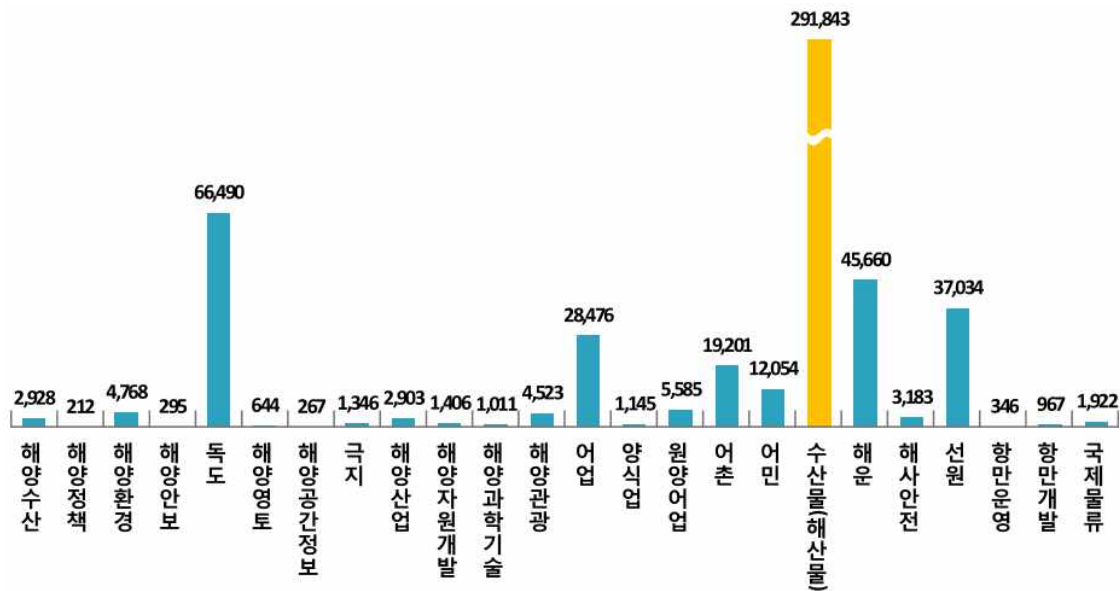
해양수산 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총괄]

■ 해양수산 관련 24개 키워드 중 언급량은 수산물(해산물 포함), 독도, 해운 순이며, 해양정책, 해양공간정보, 해양안보, 해양영토는 상대적으로 언급량이 미미

-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수산물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독도가 소셜 미디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2016년 한진해운 사태이후 해운의 언급량도 꾸준히 높게 나타남
- 반면에 해양정책, 해양안보, 해양영토, 해양공간정보 등은 연간 언급량이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해양수산 관련 키워드의 언급량



■ 키워드의 매체별 언급량은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는 뉴스에, 민간이 주도하거나 국민생활 연관성이 큰 경우는 블로그와 트위터 등 개인 미디어의 비중이 높은 편

- 해양정책, 해양환경, 해양안보, 해양산업 등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는 주로 뉴스를 통해 데이터가 생성되며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짐
- 반면에 양식업, 어촌, 수산물, 국제물류는 블로그에, 독도, 어업, 원양어업, 선원은 주로 트위터에서 언급되는 등 민간이 주도하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키워드는 주로 개인 미디어에서 생성됨

표 2. 해양수산 관련 키워드의 매체별 언급량 현황

구분	언급량(건)				언급량 비중(%)		
	뉴스	트위터	블로그	합계	뉴스	트위터	블로그
해양수산	1,589	515	824	2,928	54%	18%	28%
해양정책	135	14	63	212	64%	7%	30%
해양환경	2,748	359	1,661	4,768	58%	8%	35%
해양안보	217	14	64	295	74%	5%	22%
독도	9,952	35,440	21,098	66,490	15%	53%	32%
해양영토	368	49	227	644	57%	8%	35%
해양공간정보	154	18	95	267	58%	7%	36%
극지	533	268	545	1,346	40%	20%	40%
해양산업	1,832	179	892	2,903	63%	6%	31%
해양자원개발	658	97	651	1,406	47%	7%	46%
해양과학기술	465	76	470	1,011	46%	8%	46%
해양관광	2,279	381	1,863	4,523	50%	8%	41%

구분	언급량(건)				언급량 비중(%)			
	뉴스	트위터	블로그	합계	뉴스	트위터	블로그	
수산	어업	7,928	11,292	9,256	28,476	28%	40%	33%
	양식업	374	245	526	1,145	33%	21%	46%
	원양어업	906	3,441	1,238	5,585	16%	62%	22%
	어촌	3,989	4,256	10,956	19,201	21%	22%	57%
	어민	4,441	3,176	4,437	12,054	37%	26%	37%
	수산물(해산물)	18,125	71,923	201,795	291,843	6%	25%	69%
해운항만	해운	14,792	17,496	13,372	45,660	32%	38%	29%
	해사안전	1,757	380	1,046	3,183	55%	12%	33%
	선원	6,331	21,991	8,712	37,034	17%	59%	24%
	항만운영	256	7	83	346	74%	2%	24%
	항만개발	680	45	242	967	70%	5%	25%
	국제물류	557	216	1,149	1,922	29%	11%	60%

[해양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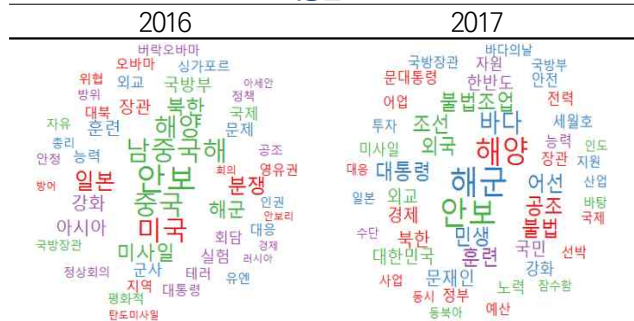
■ (연관어) 키워드별로 특정 산업 및 정책, 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관어가 많은 가운데, 정책수행 주체인 해양수산부에 대한 언급도 상위에 랭크

- (해양수산) 2016년과 2017년 동일하게 ‘산업’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2017년에는 ‘해수부’, ‘정책’, ‘장관’, ‘김영춘’ 등 지난 6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요 연관어로 나타남
- (해양정책) 2017년의 경우 ‘정부’, ‘해수부’, ‘행사’ 순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독도’, ‘영토’, ‘일본’ 등 독도 영토주권관리와 관련한 연관어가 2016년에 비해 많이 나타남
- (해양환경) ‘바다’, ‘환경’,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부’, ‘선박’ 등이 주요 연관어로 등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해양환경 보존과 관련한 키워드가 주로 발현된 반면, 2017년에는 해양수산부의 한·중 공동 황해환경조사 발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짐
- (해양안보) ‘해군’에 이어 ‘안보’, ‘해양’, ‘바다’가 많이 언급되었으며, ‘불법’, ‘어선’, ‘불법조업’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연관어와 ‘조선’, ‘한반도’, ‘북한’ 등 대북안보 관련 연관어로 검색됨
- (독도)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이 연관어 1위로 확인되며, 영토주권과 관련한 ‘땅’, ‘역사’, ‘외교부’ 등의 연관어가 함께 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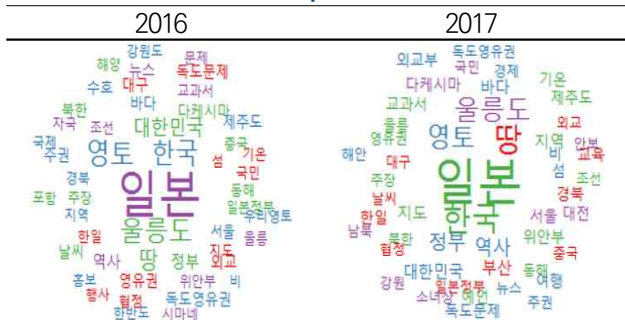
해양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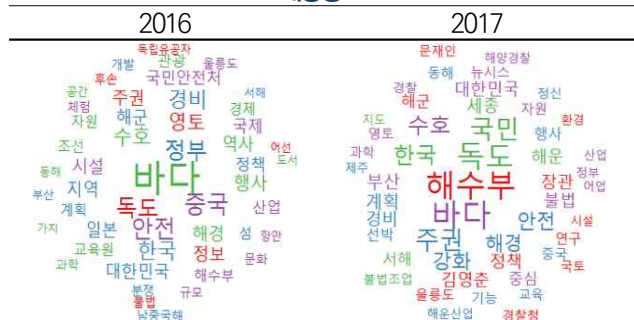
해양안보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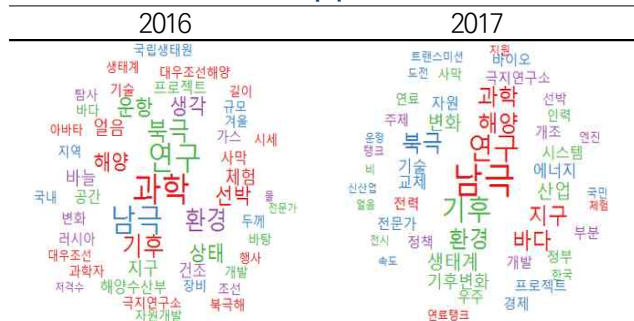
해양영토



해양공간정보



국지



해양산업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해양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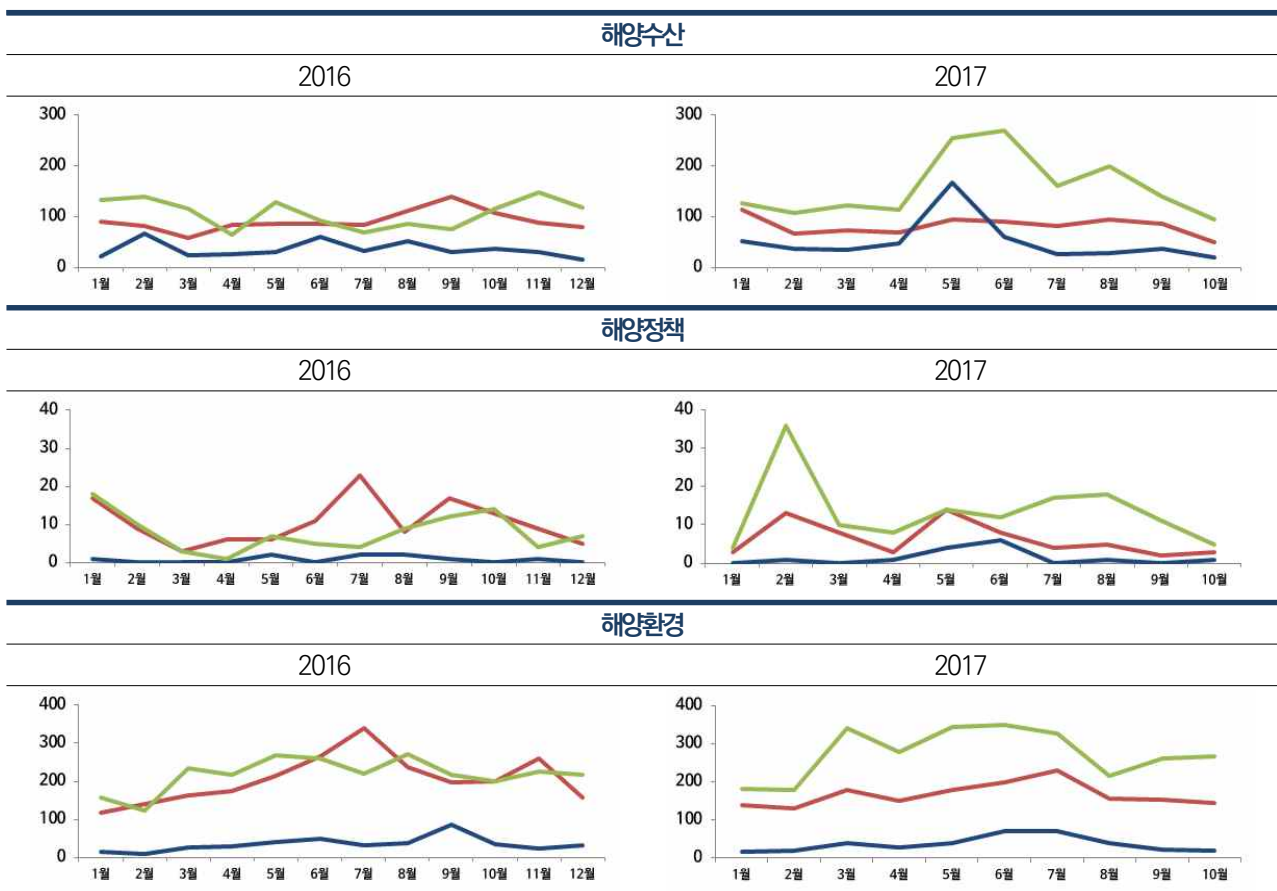


■ (관심도) 매체별로는 뉴스가 전반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가운데 해양자원개발, 극지, 해양과학기술은 블로그, 독도는 트위터에서 여론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키워드별로 특정 이벤트를 중심으로 관심도가 증가하는 경향

- (해양수산) 2017년 5~6월 뉴스와 트위터를 중심으로 언급량이 2016년 동기간 대비 급증하였으며, 이는 5월 바다의 날 기념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 (해양정책) 중국의 불법조업과 바다오염을 축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2017년 2월의 경우 서해해경의 해양안전 정책설명회 개최와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토론회 등으로 뉴스의 언급량이 급증함. 2016년부터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대한 결과를 두고 블로그 상에서 주관적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해양환경) 비교적 연중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블로그 대비 뉴스 상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공식 발표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룸. 2016년 해양환경 관리 및 보존을 위한 법적·정책적 이슈를 다루는 글이 두드러진 것과는 차이가 있음
- (해양안보) 2016년 G7정상회담에 대한 이슈를 뉴스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는 트위터와 블로그의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2017년 5월 이후 안보관련 뉴스가 증가하면서 해양안보에 관한 관심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임
- (독도) 비교적 연중 고른 언급량을 보이며, 전 기간 뉴스 대비 트위터나 블로그의 문건이 높게 나타나 독도 관련 이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활발함을 보여줌. 2016년에는 석도가 독도임을 입증하는 조선어 사전이 발견되면서 2017년 대비 언급량이 높게 나타남
- (해양영토) 다른 키워드 대비 관심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8월에는 광복절을 맞아 해양수산부의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등 각종 행사를 통해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뉴스 상에서 이슈가 됨
- (해양공간정보) 뉴스>블로그>트위터 순으로 언급량 추이가 나타나며, 해양공간정보 관련 공식 발표에 따라 뉴스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언급량이 증가함. 2016년과 2017년의 언급량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뉴스나 블로그는 해양공간정보에 관한 공식발표에, 트위터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실질적 정보에 집중함
- (극지) 2016년과 2017년의 언급량은 비슷했으며, 업무성과보고나 업무협약체결 등 공식보도 위주로 관심도의 추이가 나타남. 2017년에는 극지연구소의 남극탐사와 관련된 문건에 관심이 집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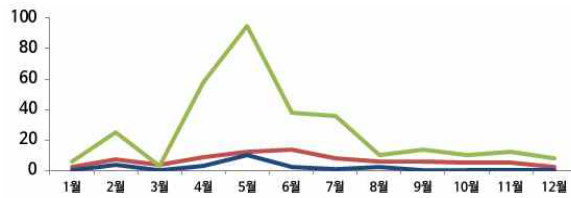
- (해양산업) 매체별 관심도가 뉴스>블로그>트위터 순으로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뉴스의 경우 해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언급량 증감 추세를 보임. 2016년과 2017년 언급량의 추이는 비슷한 편임
- (해양자원개발) 뉴스와 블로그 매체에서는 해양자원 개발 및 보존에 대한 보도가 대부분이며, 트위터 상 나타나는 해양자원개발 관련 주관적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해양과학기술) 전반적인 관심도가 낮은 가운데, 블로그를 통한 해양과학기술 정보제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산 이전 보도가 뉴스 상에서 화두가 되며 2016년 공공기관의 이벤트성 행사가 트위터 상에서 이슈가 된 것과 차이를 보임
- (해양관광) 연중 관심도가 평이하게 나타나며, 주로 뉴스와 블로그를 통해 지역별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음. 해양관광자원이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산업에 대한 문건이 블로그나 뉴스 상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트위터 상에서는 관심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남

그림 4. 해양 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 :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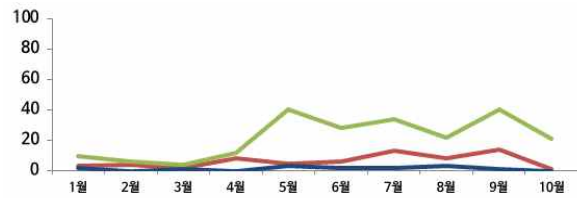


해양안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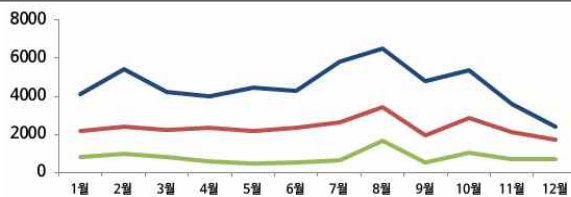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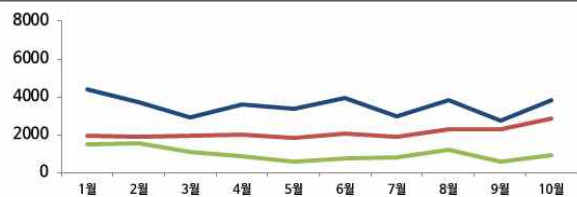


독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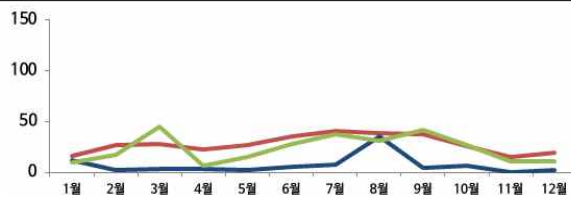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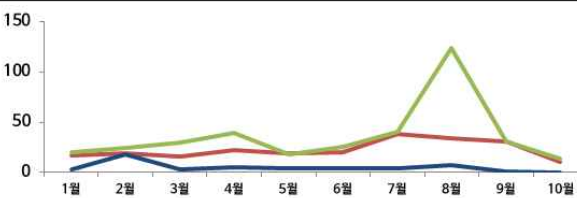


해양영토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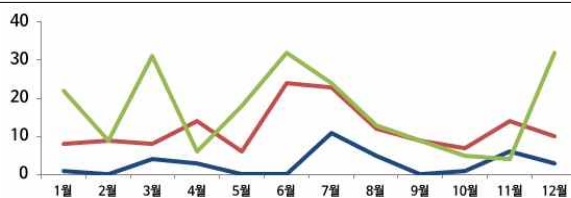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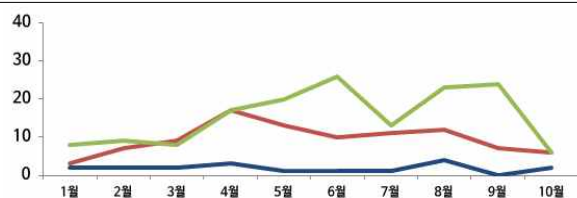


해양공간정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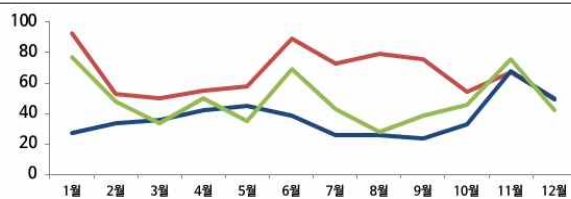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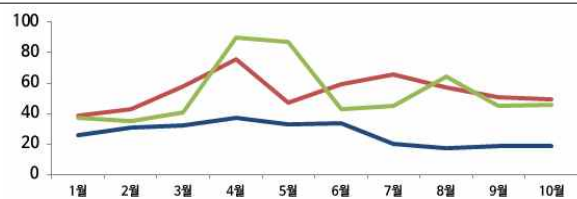


극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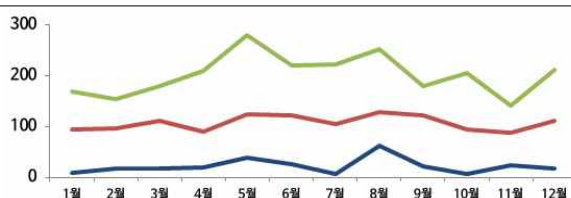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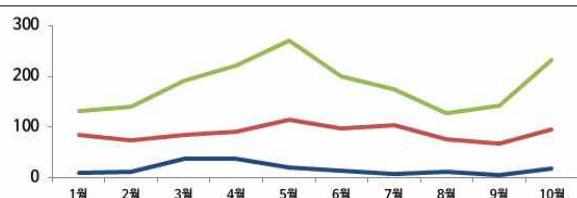


해양산업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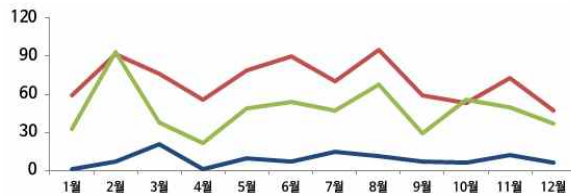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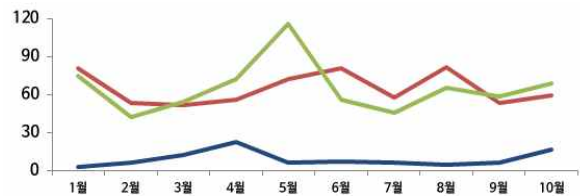


해양자원개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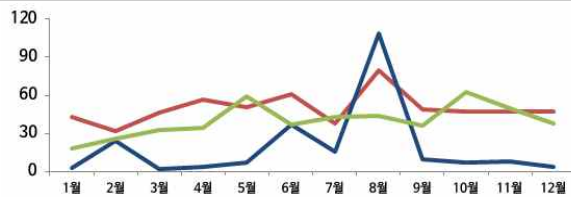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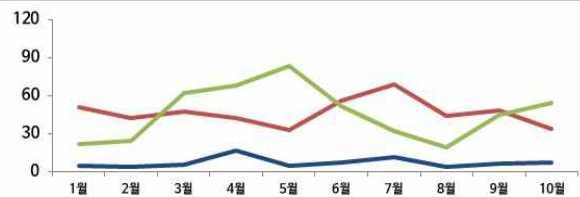


해양과학기술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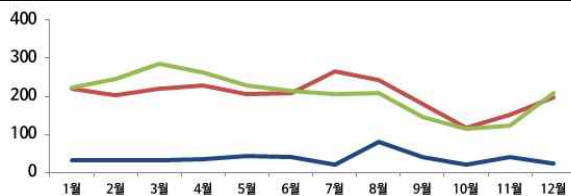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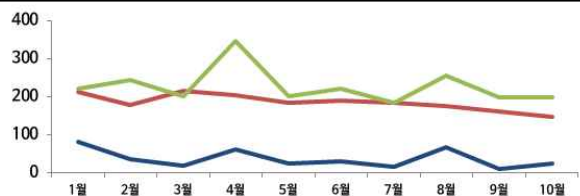


해양관광

201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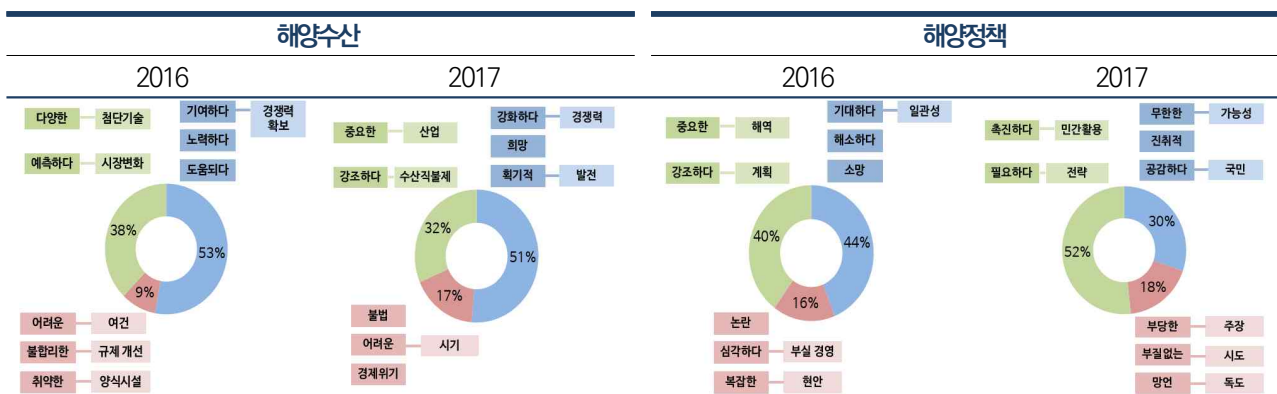
주 : ■ 트위터 ■ 블로그 ■ 뉴스

■ (호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해양관광은 긍정적인 반응이, 해양안보, 독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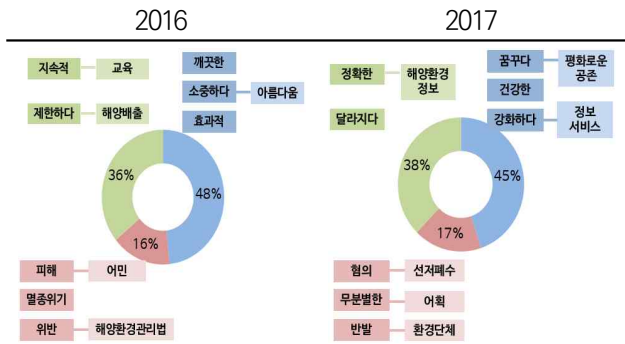
- (해양수산) 해양수산업의 중요성과 향후 경쟁력 회복가능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51%로 높은 반면,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해양수산업의 현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2016년 9%에서 2017년 17%로 크게 증가함
- (해양정책) 해양의 무한한 가능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구체적인 해양산업 육성정책 및 전략이 요구되는 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생성됨. 2016년 대비 긍정적 반응이 44%에서 30%로 크게 줄어든 반면, 중립적 반응이 40%에서 52%로 증가함
- (해양환경) 해양환경자원과 정보서비스 제공 등에 긍정 반응이 45%로 높게 나왔으며, 무분별한 어획, 환경오염, 자연파괴 등에 17%의 부정반응을 보임. 2016년과 2017년 수치는 비슷하게 나타남
- (해양안보) 해군의 대외 안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51%로 전년 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부정적인 반응도 4%p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 (독도) 독도의 자연경관이나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43%에 이른 반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27%를 차지함. 2016년과 2017년의 수치는 비슷한 편임
- (해양영토)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중립 의견에서 긍정 의견으로 약 7%p가 이동하였음. 해양안전 강화와 체계적 관리에 긍정반응이 49%로 높게 나왔으며, 열악한 여건과 주변 환경 등에 부정반응이 16% 나타남
- (해양공간정보) 2016년과 2017년 수치의 차이는 거의 없음. 해양공간정보 관리체계 강화와 다양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기대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7%에 그침
- (극지) 2016년에 비하여 부정적 의견이 긍정, 중립의견으로 소폭 이동하였음. 중립적인 반응이 47%로 높았으며, 극지 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극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형성됨
- (해양산업) 2016년에 비하여 부정 의견이 중립 및 긍정의견으로 소폭 이동하였음. 해양레저·관광산업 등 신산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침체된 조선·해운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해양자원개발) 2016년과 수치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해양자원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 반응을 보이거나 자원개발을 위한 시설이나 여건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타남
- (해양과학기술) 다양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중립반응이 나타나고, 연구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기술개발에 따른 2차적인 피해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해양관광) 아름다운 자연경관, 많은 관광객, 다채로운 이벤트 등 해양관광산업 인프라와 콘텐츠에 긍정적 반응이 56%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6%에 머무름. 2016년과 2017년 비슷한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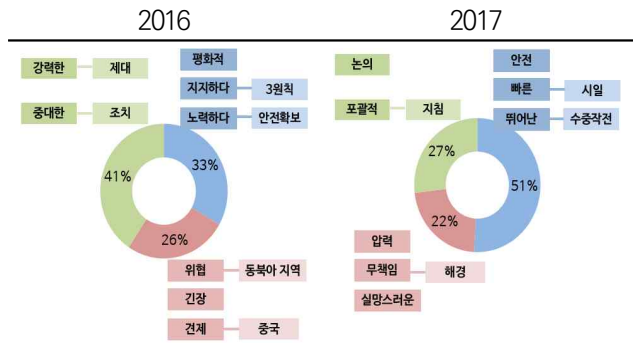
그림 5. 해양 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 :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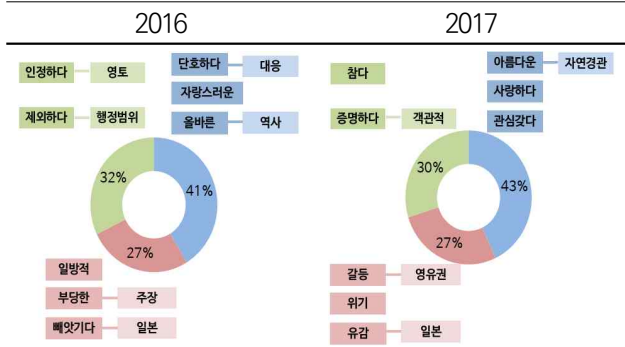
해양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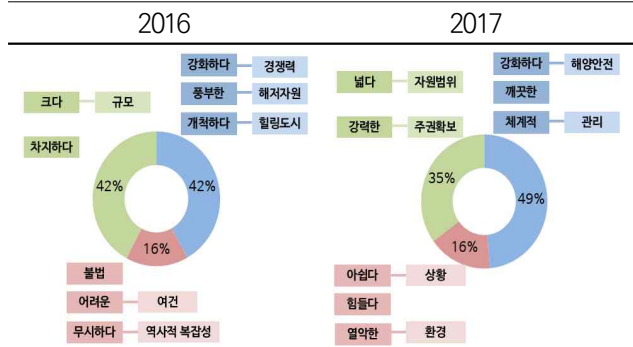
해양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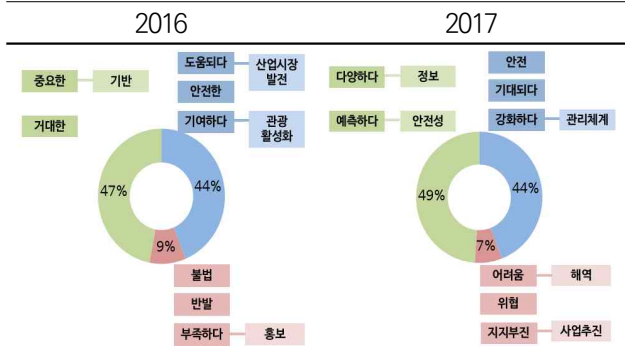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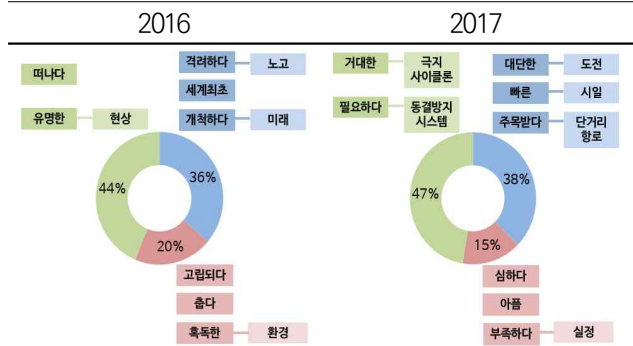
해양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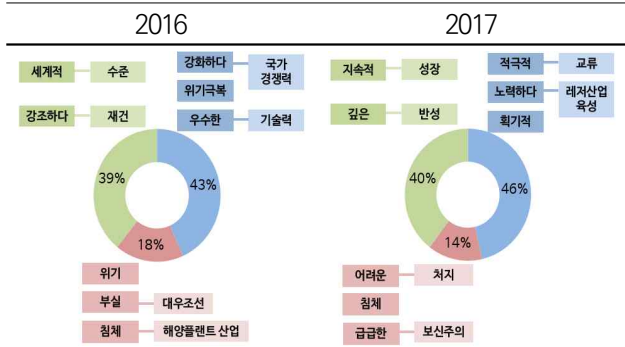
해양공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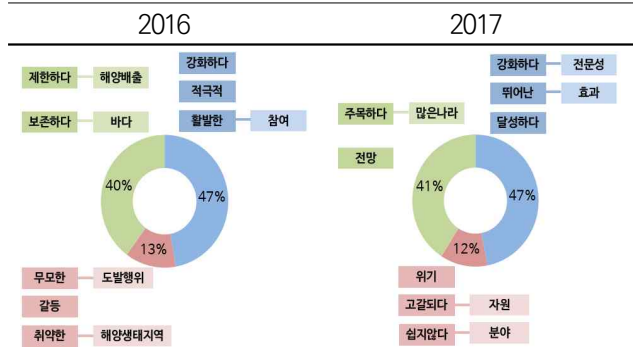
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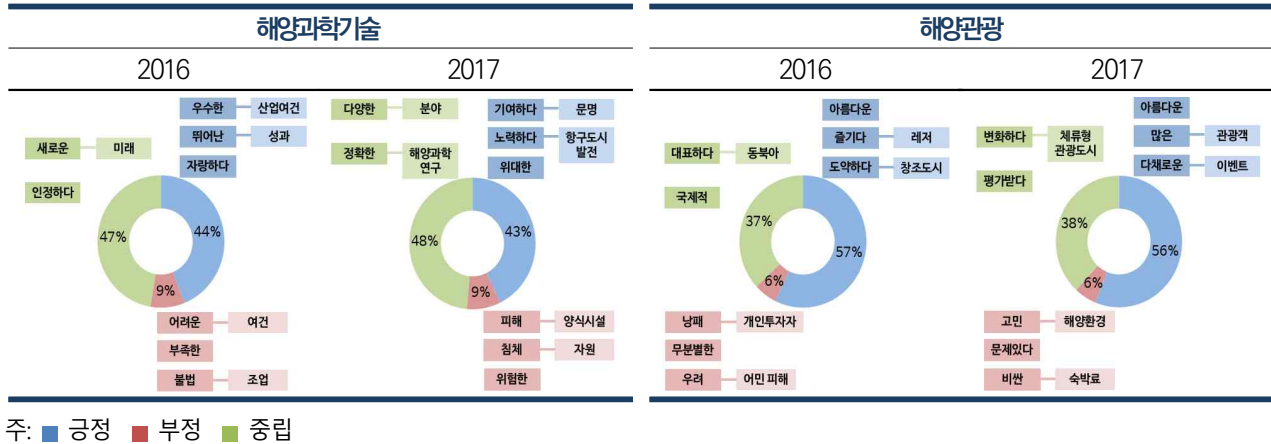


해양산업



해양자원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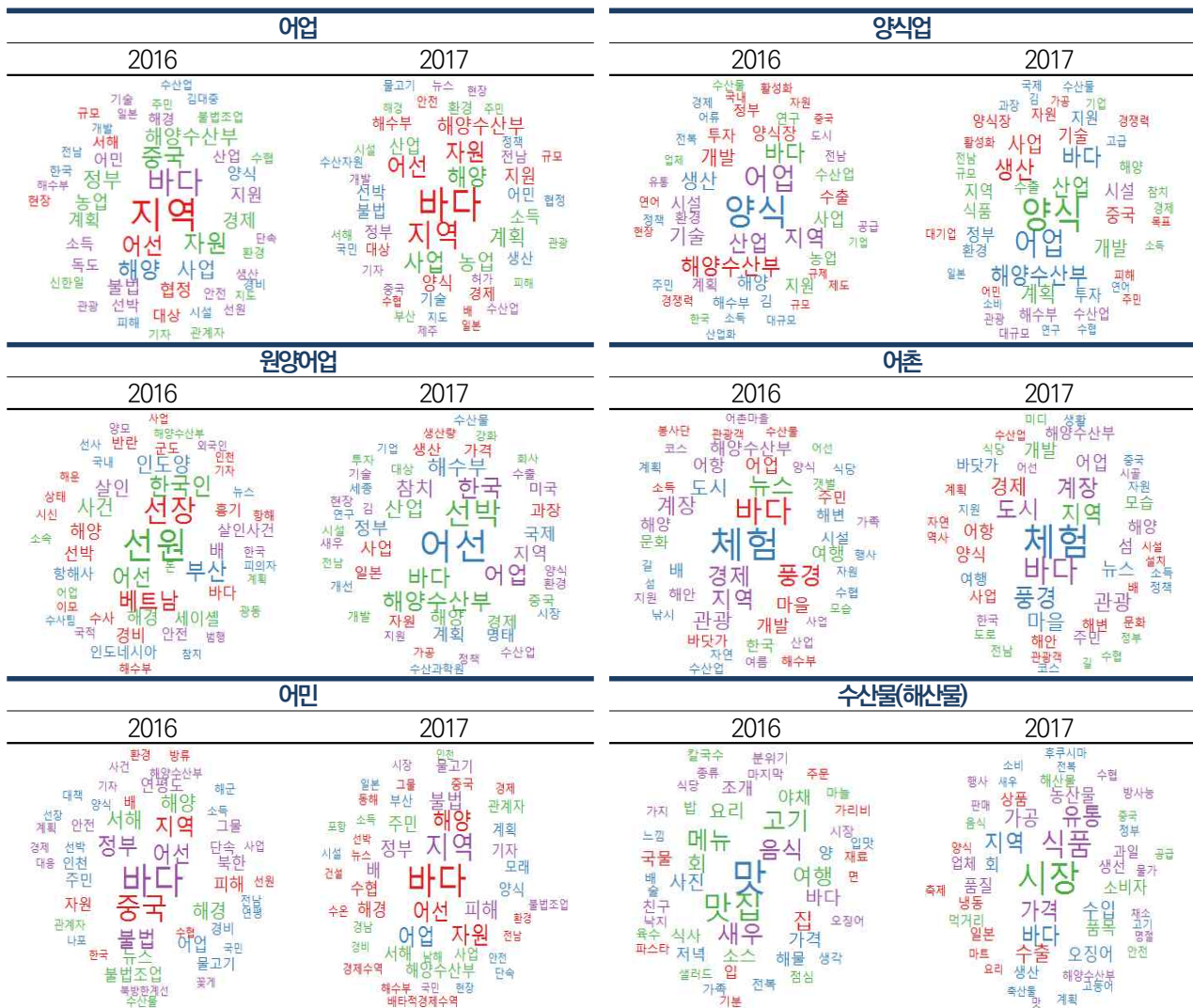
[수산분야]

■ (연관어) ‘양식’, ‘바다’를 중심으로 연관어들이 형성되고, 원양어업은 ‘어선’, 어촌은 ‘체험’, 어민은 ‘바다’, 수산물(해산물)은 ‘시장’이 핵심 연관어로 랭크

- (어업) ‘바다’, ‘지역’이 핵심 연관어로 나타난 가운데 2016년에는 ‘중국’, ‘불법’, ‘협정’ 등이, 2017년에는 ‘어선’, ‘선박’, ‘정책’ 등의 키워드가 발견됨. 2016년에는 제16차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합의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선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두드러졌음
- (양식업) 2016년에 ‘산업’, ‘투자’, ‘개발’ 등의 키워드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는 경우 ‘대기업’, ‘사업’, ‘식품’ 등의 키워드가 발견됨. 2016년에는 양식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한 양식산업발전 법안이 발의되며 미래양식산업이 이슈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고급어종에 한해 대기업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양식업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었음
- (원양어업) 2016년에는 베트남 선원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난 반면, 2017년에는 ‘어선’, ‘선박’, ‘정부’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랭크됨
- (어촌) ‘체험’, ‘바다’, ‘지역’이 상위에 랭크되었으며, ‘풍경’, ‘마을’, ‘관광’ 등 여행과 관련된 검색어들이 상위에 위치함. 2016년에는 충남도의 국내 최초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추진이 이슈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국가배상금을 가로챈 고흥 어촌계장 사건 관련 키워드가 발생함
- (어민) ‘바다’, ‘지역’, 배타적경제수역, ‘피해’, ‘수협’ 등의 키워드가 연관어로 나타남. 2016년 당시 서해 5도 어민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음

- (수산물) ‘시장’, ‘식품’, ‘가격’, ‘유통’ 등 수산물 소비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상위에 위치함. 2016년에는 국민들의 일상 속 수산물에 대한 경험이 주요 연관어로 나타난 반면, 2017년에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원산지 단속이 실시되면서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문건이 많이 발견됨

그림 6. 수산 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 : 연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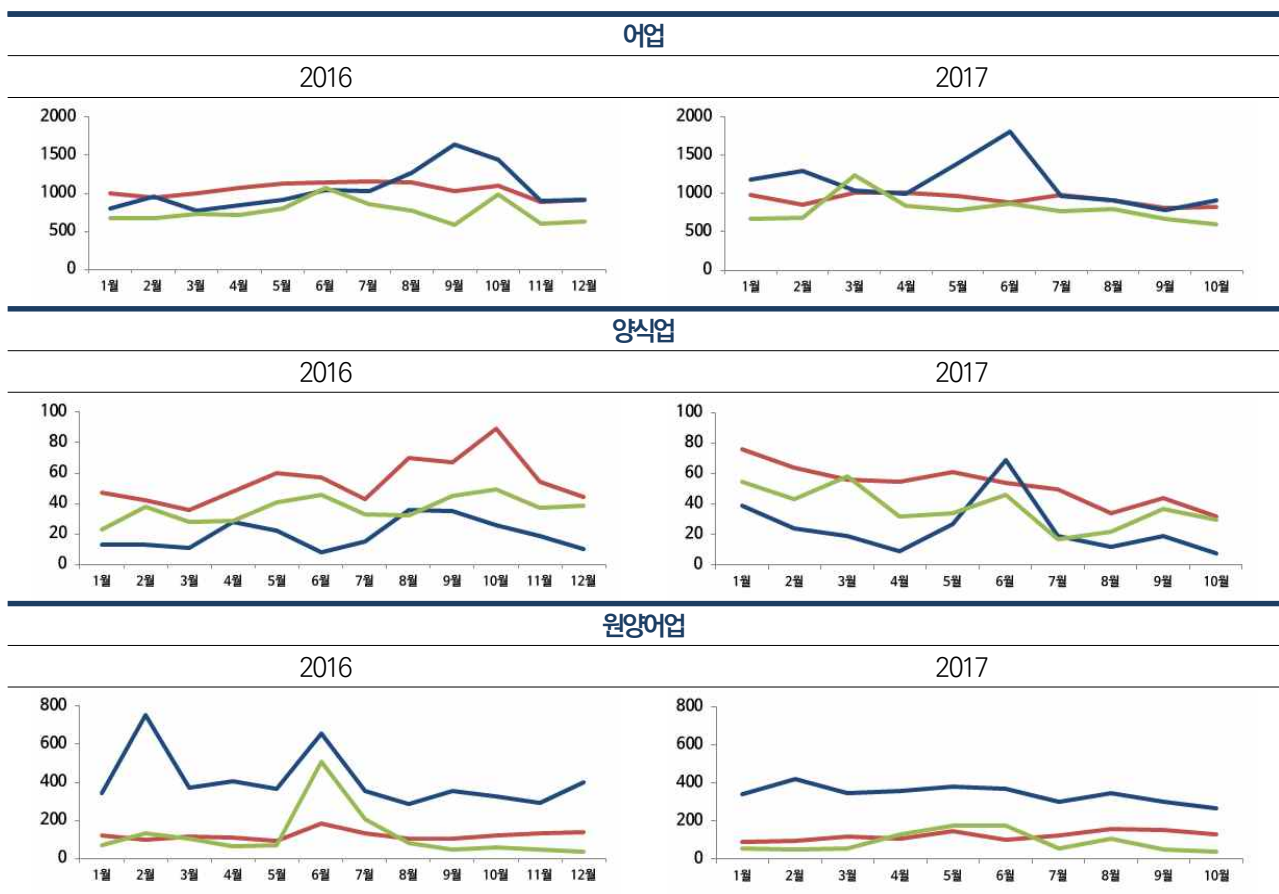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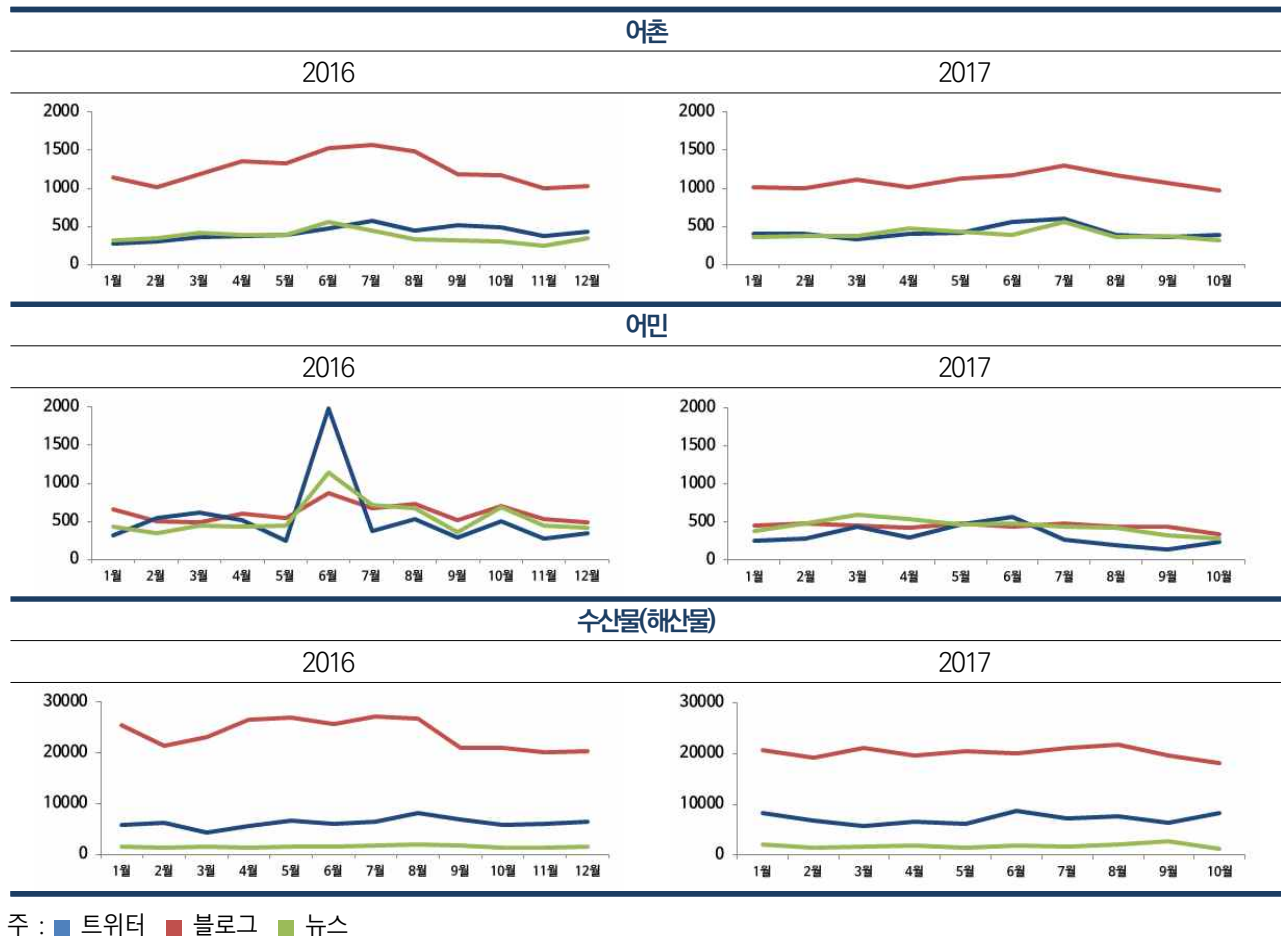
■ (관심도) 수산 관련 키워드는 주로 트위터나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생성 공유되고 있으며, 특정 이슈뿐만 아니라 계절적 추이도 존재

- (어업) 2016년과 2017년 어업에 대한 관심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6~7월 기간에 트위터를 중심으로 많은 언급량을 보임

- (양식업) 2016년에는 미래 산업으로 양식기술 및 양식수산물에 다루는 문건이 많이 발생된 반면, 2017년에는 대기업의 고급어종 양식업 진출 허용 관련 내용에 관심이 집중됨
- (원양어업) 원양 산업 현황 및 불법 원양어업 실태에 대한 내용이 발견됨. 2017년보다 2016년에 원양어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블로그나 뉴스 매체 보다 트위터 상에서의 관심이 높게 나타남
- (어촌) 2016년과 2017년 모두 휴가철인 6월부터 8월 기간 여행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블로그에서의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트위터와 뉴스 상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 (어민) 2016년 연평도 어민이 직접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2017년 대비 언급량이 높게 나타남. 2016년 트위터에서 뉴스 보도자료 공유와 함께 주관적 의견 전개가 활발히 나타났음
- (수산물) 뉴스 대비 블로그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블로그와 트위터 상에서는 주로 일상에서 접하는 해산물에 대한 맛집 리뷰 등의 문건이 발견되었고, 뉴스에서는 양식업과 관련된 보도가 주를 이룸

그림 7. 수산 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 : 관심도





■ (호감도) 여행, 먹거리와 연관된 분야에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오는 반면, 어민들의 생활 및 피해 등에 관련한 분야에서는 부정적 반응 존재

- (어업) 2017년에는 전년 대비 긍정반응이 소폭 상승하였음. 안정적 조업과 낚시어업의 성장 등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고 있으며, 27%에 이르는 부정적 반응은 불법어업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양식업) 42%의 긍정적 반응은 신선한 해산물 공급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로 보이며, 취약한 어업소득기반 등 영세한 어민 환경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2016년 18%에서 2017년 24%로 증가함
- (원양어업) 해양영토 확장에 기여하는 원양어업에 44%의 긍정 반응을 보였으며, 선원 폭행 및 불법행위, 선원 노령화 등에 22%의 부정 반응이 존재함. 2016년과 대비하여 부정 반응이 11% 감소함
- (어촌) 국민들에게 어촌은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평화로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긍정 반응이 과반수인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호감도의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어민) 부정적 반응이 2016년의 50%에 비해 크게 감소한 39%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키워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어민 피해, 열악한 근무여건, 고령화 등이 부정 반응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수산물) 2016년과 2017년 두 기간 모두 긍정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 국민들에게 수산물은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비싼 가격과 감염 등에 부정적 반응이 존재함

그림 8. 수산 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 :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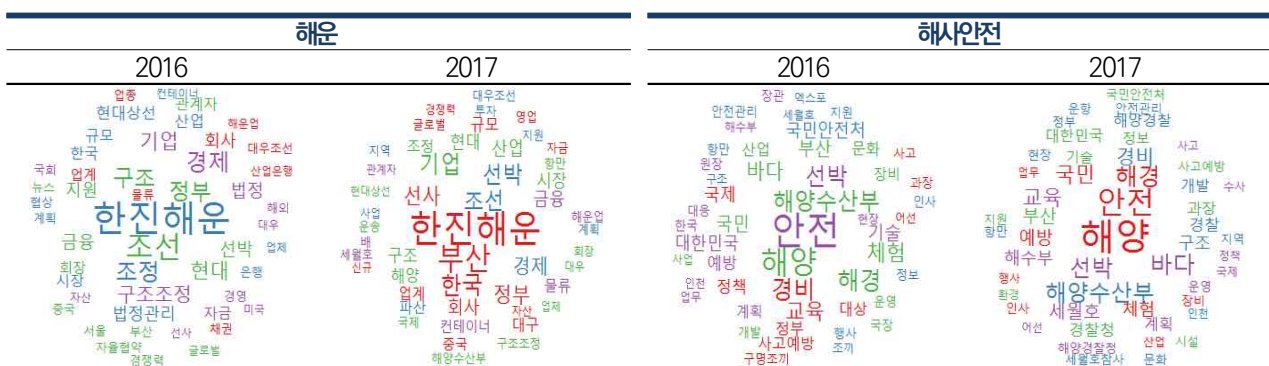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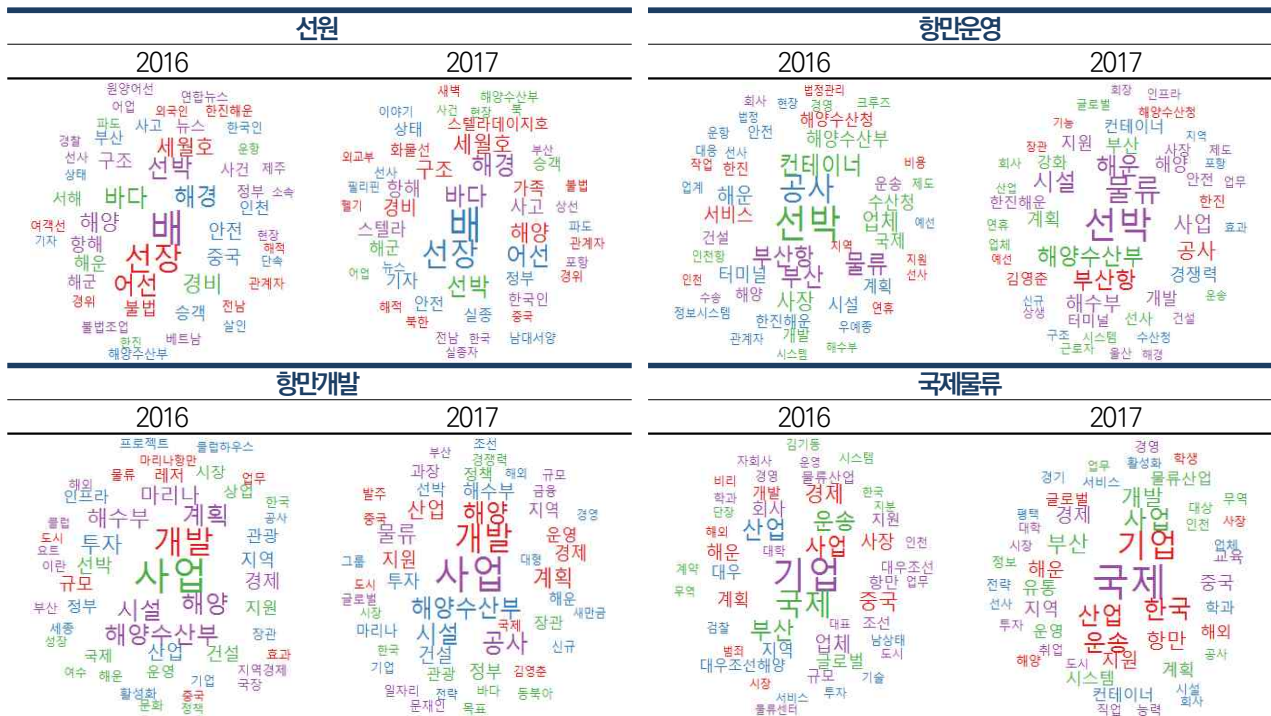
[해운항만분야]

■ (연관어) 한진해운 파산 이슈가 2017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선박’, ‘사업’, ‘물류’ 등 주로 산업과 관련한 검색어가 상위에 랭크

- (해운) ‘한진해운’이 가장 많이 언급된 가운데 ‘부산’, ‘금융’, ‘기업’ 등의 키워드도 같이 언급됨.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슈가 발생했고 2017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사안전) 2016년 ‘안전’, ‘해양수산부’, ‘사고예방’ 등의 키워드가 발생했으며, 2017년의 경우 ‘해양’, ‘해경’, ‘국민’ 등의 키워드가 발견됨.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관련 발표에 따라 연관어가 나타나고 있음
- (선원) 2016년에 ‘선박’, ‘항해’, ‘경비’ 등의 키워드가 발생했으며, 2017년의 경우 ‘스텔라 데이지호’, ‘선장’, ‘세월호’ 등의 키워드가 발견됨.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 규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며 화제가 됨
- (항만운영) 2016년에 ‘공사’, ‘부산항’, ‘컨테이너’ 등의 키워드가 발생했으며, 2017년의 경우 ‘물류’, ‘해운’, ‘시설’ 등의 키워드가 발견됨. 2016년 부산항 신항 터미널 운영사의 선석공동운영 협약이 이슈가 됨.
- (항만개발) 2016년에 ‘해수부’, ‘마리나’, ‘프로젝트’ 등의 키워드가 발생했으며, 2017년의 경우 ‘공사’, ‘계획’, ‘물류’ 등의 키워드가 발견됨. 2016년 정부의 마리나 항만 개발 계획 발표에 따라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반응이 나타남
- (국제물류) 2016년 ‘기업’, ‘산업’, ‘대우조선’ 등의 키워드가 발생했으며, 2017년의 경우 ‘국제’, ‘운송’, ‘항만’ 등의 키워드가 발견됨. 2016년에는 대우조선 비리 수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와 관련된 국제물류 키워드가 나타남

그림 9. 해운항만 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 : 연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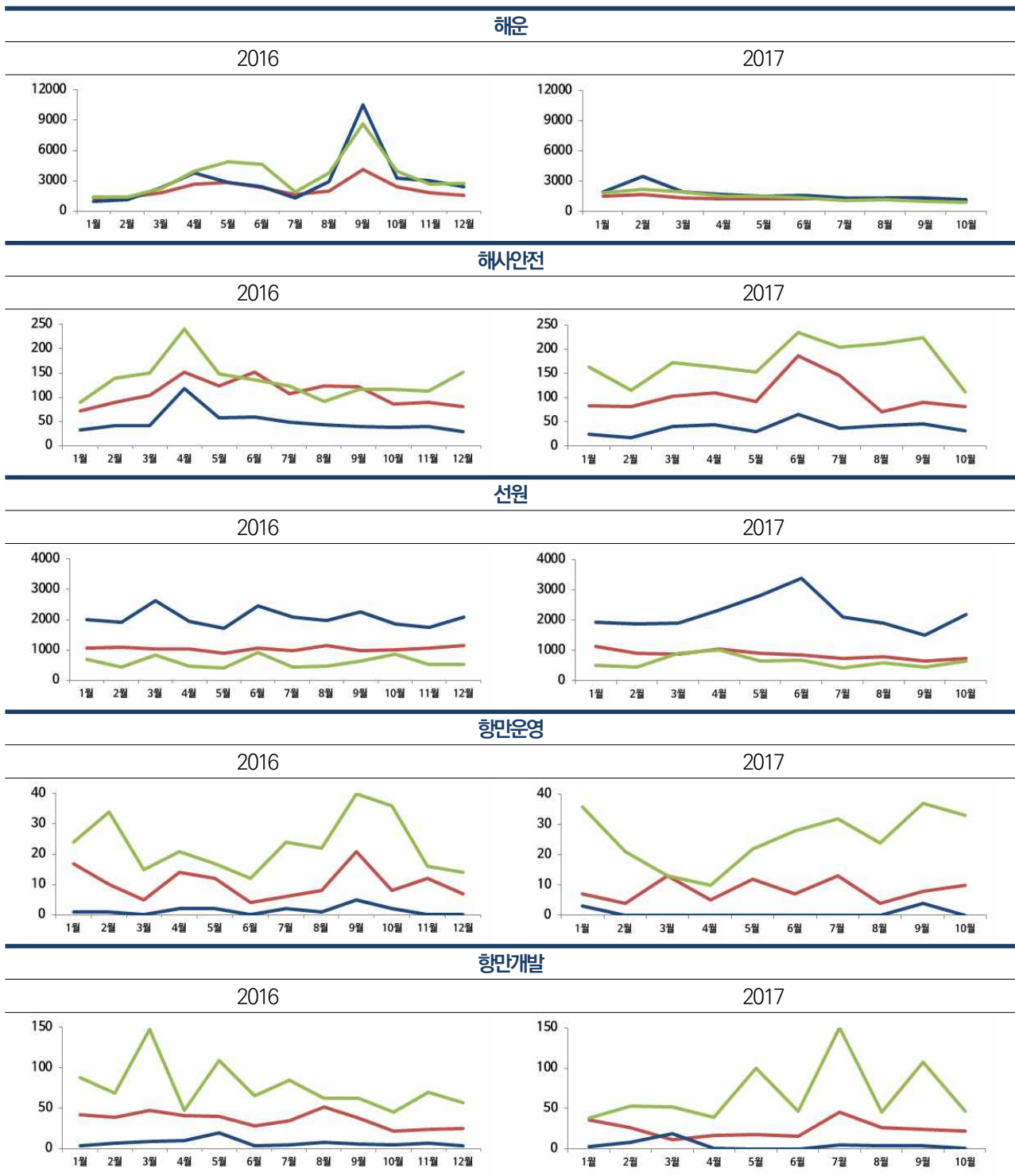


■ (관심도) 해운항만 관련 사건과 사고, 정부의 정책 발표 발생 시 뉴스를 통한 언급량이 증가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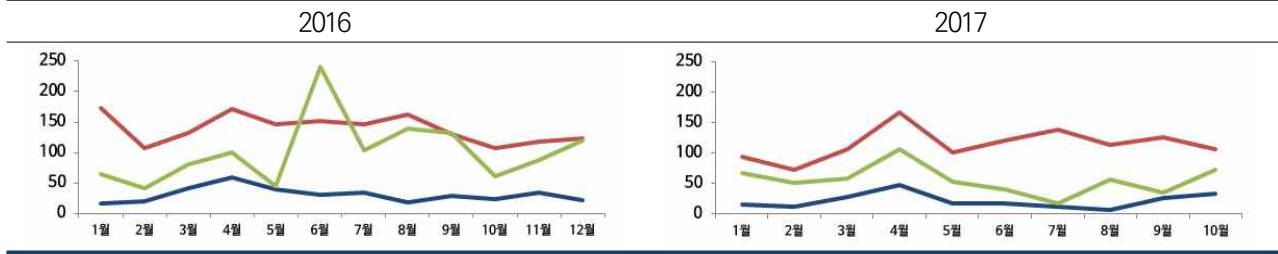
- (해운) 한진해운 사태로 2016년 해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특히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2016년 9월 언급량이 가장 많았음. 이는 파산 선고를 받은 2017년 2월까지 이어졌다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함
- (해사안전) 2016년보다 2017년의 관심도가 높은 편임. 해양수산부의 정책 발표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위주의 뉴스보도가 두드러졌으며,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보도가 공유 및 확산됨
- (선원)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수색작업에 대한 관심과 홍진호 북한 나포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2016년 대비 선원에 대한 언급량이 상승함.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여론이 트위터 상에서 활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항만운영) 전반적으로 언급량이 저조하며, 관심의 대부분이 뉴스 보도를 통해 나타남. 뉴스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한 보도 내용을 담고 있으며, 블로그나 트위터 상에서의 주관적 의견은 거의 없음
- (항만개발) 2017년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마리나 항만시설 직접운영권에 대한 뉴스 보도로 인하여 뉴스 언급량이 증가하였음

- (국제물류) 2017년에는 2016년 보다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 대우조선 해양관련 뉴스 보도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10. 해운항만 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 : 관심도



국제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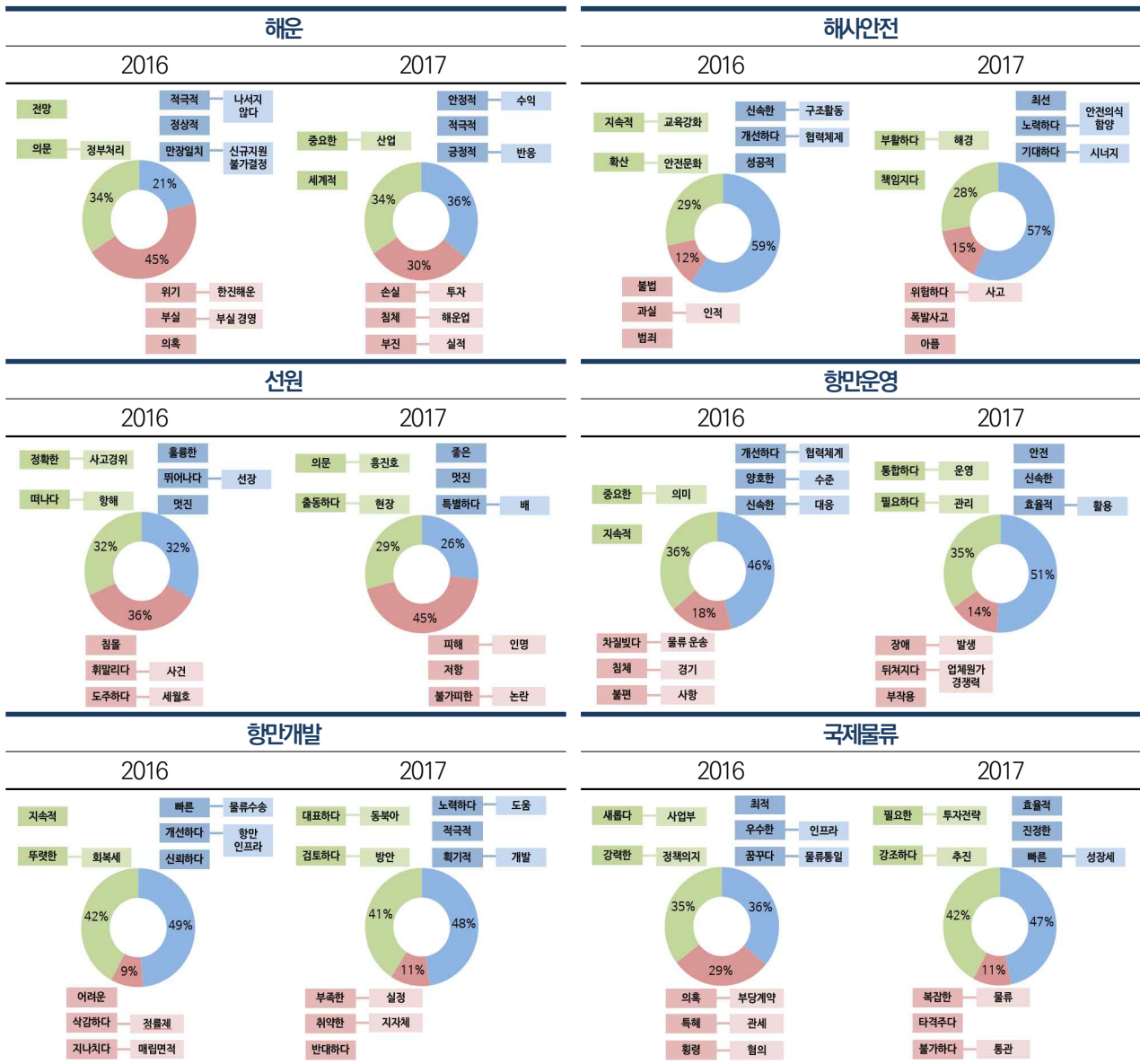


주 : ■ 트위터 ■ 블로그 ■ 뉴스

■ (호감도) 해운항만분야의 효율성 개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 반응이 높았으나, 안전에 대한 염려와 인명 피해 등 부정적 반응도 큰 비중을 차지

- (해운) 2016년 한진해운 사태로 인하여 부정반응이 45%였으나 2017년에는 30%로 낮아졌으며, 긍정 반응도 21%에서 36%로 크게 증가함
- (해사안전) 안전의식 함양 노력 등으로 인해 긍정적 반응이 57%로 높았으며, 해경의 부활도 중립적 반응에서 영향을 미침
- (선원) 2016년 36%를 차지한 부정반응이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등 직접적 인명 피해로 인하여 45%로 크게 증가함
- (항만운영) 항만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인식이 긍정적 반응을 불러왔으며, 항만 통합 운영관리의 성과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항만개발) 항만의 획기적 개발 노력이 48%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으며, 부정적 반응은 11%로 낮게 나타남
- (국제물류) 긍정 반응이 36%에서 47%로, 부정 반응이 29%에서 11%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국제물류업의 성장가능성과 효율성 개선에 대한 기대로 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11. 해운항만 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 : 호감도



주: ■ 긍정 ■ 부정 ■ 중립

시사점

■ 전체 언급량에서 해양분야와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한 반면, 해운항만 분야의 비중은 감소

- 2017년 수산분야의 언급량 비중은 67.1%로 전년대비 4.2%p 증가한 반면, 해운항만 분야는 16.7%로 전년대비 4.6%p 감소함
- 해양분야에서는 해양환경, 해양관광, 해양자원개발 등 환경과 레저관광 분야가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으며, 수산분야는 수산물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키워드의 언급량 비중이 증가함
- 해운항만분야에서는 해운이 14%에서 9%로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항만은 정체되었으며 해사안전, 선원은 소폭 증가함

■ 해양수산 주요 키워드의 개인 미디어 노출은 감소한 반면, 뉴스의 언급량이 증가

- 매체별 언급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블로그, 트위터 등 개인 미디어의 언급량이 감소한 반면, 뉴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이는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 분야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현안 및 중장기 정책이 수립·발표 되었고, 뉴스 보도를 통해 활발히 전달되었음을 보여줌
- 또한 국민들의 관심도 해양수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집중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 반응이 상승하고 부정 반응은 감소하였음

■ 해양수산 3대 분야 24개 키워드의 전반적인 호감도는 상승

- 24개 키워드 중 13개에서 긍정반응이 증가하고 11개 키워드의 부정반응이 감소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호감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해양안보, 해운, 국제물류, 원양어업, 어민 등은 긍정반응이 크게 증가하고 부정반응은 크게 감소하여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뚜렷함
- 특히 해운은 부정적 반응이 45%에서 30%로, 국제물류는 29%에서 11%로 크게 감소하며 해운물류 산업의 위기극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엿볼 수 있음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파제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자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중·일·남북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구분	제목	발행일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첨병!, 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북극 과학연구 강화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5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URL : <http://www.kmi.re.kr/>